

사랑 남원





PHOTO ESSAY



코스모스

윤 동 주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추운 밤이면
옛소녀가 못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흥부제 제27회

2019.10.11(금) - 13(일)

사랑의 광장, 테마파크, 관광단지 일원
* 고유제 10. 7.(월)/인월, 아영

주요행사 개막식 및 축하공연, 불꽃놀이, 흥부가요제,
떡나눔행사, 흥부골 남원 농악경연대회,
거리공연, 흥부樂놀부樂 한마당 등

주최·후원 ♥ 남원시 흥부제추진위원회

- CONTENTS -

vol. 74



08



- 04 남원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합니다
①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②남원다움
- 08 광한루 600년 행사 이모저모
- 10 남원 귀농귀촌 이야기
- 12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남원
- 14 울 추석은 '춘향애인'과 함께
- 16 사진으로 만나는 남원의 가을
- 18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③
대산면사무소를 소개합니다
- 20 청년이 행복한 남원①
청년 맞춤 일자리 사업

- 22 책으로 만나는 남원②
소설 '흔들' 속 서도역
- 24 남원시 블로그 기자가 바라본 남원①
만인의총 단풍
- 26 고향에 기부하고 세금 돌려 받자
- 28 언저니 계속되는 고향사랑
재외남원향우회
- 30 SNS로 본 남원
SNS 속 남원이야기
- 32 더 발전하는 남원소식
- 34 남원시의회 소식
- 36 알림마당
- 38 취업의 문을 열자



16



22

KakaoTalk
플러스친구 남원시

친절남원

친절 칭찬 / 불친절 신고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기방법

카카오톡 검색 친구찾기 검색 친구추가

우리, 친구해요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을 만들겠습니다. 문의사항: 남원시청 총무과 063)620-6064

사랑
남원

AUTUMN 2019 - vol. 74

발행처 남원시
발행인 남원시장 이찬주
발행일 2019. 9.
주소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620-6043
홈페이지 www.namwon.go.kr

남원시와 SNS로 친구맺기

- facebook.com/goodnamwon
- blog.naver.com/goodnamwon
- instagram.com/goodnamwon
- youtube.com/user/goodnamwon

시정소식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남원시 홍보전선과 ☎020-604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표지 이야기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남원 꿈나무들의 새로운 요람,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도서관은 진정한 비덕으로 가득한 고대 현인의 모든 유물이 그리고 현혹과 기만이 없는 모든 것이 보존되어 안식하는 신전이다”라고 일컬으며 도서관의 위대함을 찬양한 바 있다.

도시 지속적인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공공도서관 1관 당 인구 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49,692명으로 선진국인 독일(11,151명), 영국(15,465명), 미국(34,301)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남원에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지난 7월 25일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개관에 들어간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454㎡의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최신식 시설을 갖춘 도서관이다.

2016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되며 건축에 들어간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교육과 학습 환경 조성은 물론 다양한 계층 간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장애인과 임산부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BF)**인증을 받아 설계가 이뤄진 점은 백미라 할 수 있다.

1층은 부모님들과 유아들이 이용하는 **유아 자료실**과 **수유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어린이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턱을 없앤 게 특징이다. 1층에는 기존의 도서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난감 대여소도 있다. 회원에 가입하고 연회비 만원이면 언제든지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어 도서관이 문을 열자마자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층은 어린이 자료실, 일반자료실, 상상서가, 휴게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한쪽에서 건물 천장까지 닿아있는 상상서가는 보는 이를 압도하게 만들며 눈길을 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상상서가'라 이름 붙인 이곳은 앞으로 수많은 책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도서관 **3층**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동아리실, 전시실, 강의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활동과 여가활동까지 해결할 수 있는 멀티 문화시설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남원 문화 발전의 뿌리가 될 꿈나무들의 요람, 남원시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남원의 과거를 비춰 미래를 준비할 기록물 전시관 '남원다움' 개관



기록은 과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자, 그 거울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는 디딤돌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인물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기록말살형(Damnatio Memoriae) 일 정도로 기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은 물론, 관람객이 힐링하며 시대별 남원시 행정 변천사는 물론, 체험

시설까지 경험할 수 있는 남원시 근현대기록관, '남원다움'이 9월에 문을 연다.

지난 2016년부터 구축 계획이 수립된 '남원다움'은 2018년 6월에는 '남원 근현대거리 체험형 콘텐츠' 개발 및 구축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받으며 순조롭게 건립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업추진 중간 발간된 금동(17년 11월), 동충동(18년 4월), 죽향동(18년 11월) 등 구도심기록화

조사집은 많은 이들에게 호평 받으며 '남원다움' 건립의 취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다.

남원다움관의 외형은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성격을 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의 성격으로 갖춰질 예정이다.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바탕으로 전시도 하고, 서가를 배치해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콘텐츠로 재구성해 모든 이들에게 공유하며 남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록관으로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기록물(아카이브즈)을 수집·보존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원 기록보존소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남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건물은 총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제1전시실에 근현대 모든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며, 2층에는 '나도 공무원'이라는 테마로 시대별 행정 변천사 및 남원시 명예시장실을 구비할 제2전시실과 '공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가상체험을 해볼 수 있는 '인력거, 남원근현대거리를 달리다'를 체험할 수 있는 제3전시실로 구성된다.

야외에는 녹지공간과 유명 화백들의 벽화를 통해 도심속 정원을 조성해 산책 코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남원다움'에서는 10월까지 콘텐츠 수집 공모전인 「남원잇~다」와 함께 전시 가능한 유물을 공개 매입중이다. (문의 620-6083)

남원의 새로운 명소가 될 '남원다움'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해본다. 📍



1 남원다움 전경 2 제2전시실 - 행정자료 3 제1전시실 - 복합도서관
4 제3전시실 - 행복사진관 5 제3전시실 - 인력거 가상체험시설

이제는 천년을 향해 갑니다.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칠석을 앞 둔 8월 2일에서 4일, 남원에 서는 600년을 맞은 광한루를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졌다.

황희정승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역사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온 광한루.

사랑과 만남의 대명사로 우리와 함께해 온 광한루는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될까?

남원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 광한루 600년 행사를 되짚어 보며 광한루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자. 





1 광한루 600년 타북행사 2 광한루 600년 타암갯술 편지 안치 3 서예가 효병 어태영 선생의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 4 광한루내 공연 5 광한루 600년 축하공연

귀거래사(歸去來辭) 읊으며 남원으로 돌아갑니다.

나이 41살에 벼슬살이에서 불려나 고향의 논밭으로 돌아갔던 중국 육조 시대 시인 도연명은 자신의 심정을 '귀거래사(歸去來辭)'라는 시를 읊으며 남아녘다.

13년간 봄답았던 관직에의 미련을 떨쳐내고 그가 '귀거래사'를 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현실에 대한 환멸도 있었겠지만, '매일 거닐며 정취를 즐길(園日涉以成趣)'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마음의 고향 혹은 고향과 같았던 곳을 찾아 귀농 귀촌이 늘고 있다. 혹은 도연명처럼 혼란스럽기만 한 도시를 벗어나 한가로이 정취를 즐기고자 논과 밭을 찾아 떠나기도 한다.

'귀거래사'를 떠올리며 돌아갈 수 있는 곳,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게 우리를 안아줄 지리산이 기다리고 있는 남원이 바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다.

남원시에서도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귀농귀촌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행사 운영은 물론, 정착 관련 상담에 전문적으로 응할 수 있는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남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잠재적 귀농귀촌 최대 수요지인 수도권에 남원으로의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라북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내에 남원 홍보관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서울, 대전,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진행하며 홍보와 상담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정착 초기 소득기반이 부족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이사비(100만원), 주택수리비(500만원 한도), 자녀정착금(50만원)의 자금 지원도





1 귀농귀촌학교-상추따기체험 2 주생면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3 신아초학교 교육사진

병행하고 있으며, 귀농인을 위한 창업자금(최대 3억원), 주택자금(7,500만원)까지 추가로 융자지원하며 이들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거주 공간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 조성은 물론, 귀농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소규모샬터 조성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귀농귀촌인들의 거주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주생 귀농귀촌 가족실습농장은 지난 6월에 준공이 이뤄졌으며, 현재 주택 10호에 대한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 곳에서는 향후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살아있는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16억4천만원을 들여 단지 내 상수도, 배수시설 등을 지원한 주천지구 숲속전원마을은 현재 총 41가구 중 23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18가구도 현재 주택 신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41가구 모두가 마을을 이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4가구 이상의 귀농귀촌인들이 샬터 조성을 희망할 경우, 상·하수도, 도로포장, 오·폐수시설 등의 마을 공동기반시설 조성에 5천만원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샬터 조성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22개소의 샬터 조성되어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환

영회는 물론 주기적인 간담회, 재능기부활동, 동아리 지원, 귀농귀촌인의 날 제정 등 주민유대강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을 쏟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갈등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부들이 모여 발대한 청년농부연합 '지움'이 청년 한식당-농민 연계행사(농식품부-한식진흥원 주최)에 참여하며 남원 귀농귀촌인들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농부가 내개 와 봄이 왔음을 알려주니
(農人告余以春及)

내일은 서쪽 밭에 나가서 밭을 갈리라
(將有事於西疇)

동쪽 언덕에 올라 길게 휘파람을 불고
(登東阜以舒嘯)

맑은 시냇가에 앉아 시도 짓는다
(隨清流而賦詩)

도연명의 '귀거래사'에는 귀농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왕 귀농귀촌을 결심했다면, 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은 남원은 어떨까? 사람만 채워지면 남원은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1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남원

2019년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로 도약

2014년 남원이 국내 최초의 문화도시 특화지역사업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5년간의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되었다.

올 한해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앞서 '남원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문화도시 거점을 위한 기틀 마련', '문화도시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목표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문화 활성화 분야에서는 기존의 사업들과의 연계 과정을 가지고 더욱 확산하거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마련에 주력한 사업들로 구성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 하고 일상의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소통하면서 문화활동을 제안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모임을 위해 '문화반상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메모리즈' 사업은 사운드 테마의 특성화를 가지고 사운드 전문가와 남원 시민으로 구성된 소리채집단이 함께 만드는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이야기와 환경, 자연 등 다양한 지역의 소리콘텐츠를 '남원라디오'라는 미디어 기반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담아 낸다.

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인 '소리두드림'에서는 남원의 리듬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퍼포먼스팀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며, '팟캐스트'에서는 녹음의 방법과 인터뷰 등의 활동 영역에서 시민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확장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문화 장소연결 분야에서는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거나 문화도시 플랫폼 공간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시연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생활문화 동호회 기반으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고수' 사업을 통하여 지역 생활문화 동호회들의 커뮤니티 확장 및 시민 주도적인 생활문화 활성화에 가치를 둔다. 또한 문화도시 특화지역 사업에서는 구도심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본 사업에서는 농촌지역을 포함한 남원 전역으로 사업 대상을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도시문화 개발 분야에서는 남원문화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정체성 확립과 특성화 분야인 남원 사운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화도시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리 문화도시 남원'으로 설정한 만큼 소리문화 도시로서의 자긍심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소리자원에 대한 기록과 활동에 대한 예술적 탐구와 실험이 남원사운드에 대한 방향이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판소리와 춘향의 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 영역에서의 '귀명창'이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적인 표현 방식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가지고 하나의 축제 안에서 펼쳐내는 '사운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문화 경영 분야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창출해 내기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 과정을 통해 추진위원들을 구성하여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실행, 평가, 성과에 대한 논의 구조를 체계적



1 팻캐스트 2 소리두드림 3 문화반상회 4 메모리즈, 남원라디오

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참여에 의한 문화자립 공동체 실현의 과정을 담고 있다.

남원 문화도시의 지향점은 사업의 성과 보다는 시민 참여를 중시하며,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화 공동체 역량을 증대 하고자 한다.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적 삶'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시민 문화권리를 통해 일상이 행복한 **대한민국대표문화도시 남원**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남원 농산물은 여러분의 선택에 신뢰로 보답합니다.

'춘향애인', 문학작품의 제목 같은 이 이름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이름이다.

농산물 거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떠들썩하게 말이 오가고 서로간의 소식을 묻으며 조금이라도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5일장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5일장에서 꼼꼼하게 불건을 살피고, 서로 간에 조금은 지루한 흥정 끝에 맘에 드는 농산물을 양손에 들고서 집으로 돌아간다.





1 지자체협력사업 및 농산물브랜드 최우수조직 수상 2 춘향골서리선별장 모습 3 뉴질랜드 춘향애인 포도수출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여전히 장터에서도 많은 농산물이 거래되지만 마트나 인터넷 마켓을 통해 필요할 때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매매 방식으로서의 진입에 가속을 더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신뢰다.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남원농산물은 그동안 50여개의 브랜드가 난립해 뛰어난 품질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유통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원시는 소비자 인지도와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개발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은 남원의 문화유산인 춘향과 청정 춘향골 남원에서 정성껏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따라 남원시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한 게 바로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다.

'춘향애인'은 2013년 첫해 600억원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판매액이 늘어나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 전국 12대 농산물브랜드에 선정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3년째인 2015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고품질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또, 2015년부터 4년 연속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농산물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병절이면 매년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한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이 인정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 앞에 있다면 더 이상의 고민이 필요 없다. '춘향애인'은 선택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해 줄 것이다. 



사랑과 낭만이 함께하는 남원의 가을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위도 시간이라는 마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보다.

초록빛으로 물들었던 여름은 이제 울긋불긋한 색으로 그 옷을 바꿔 입고서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낭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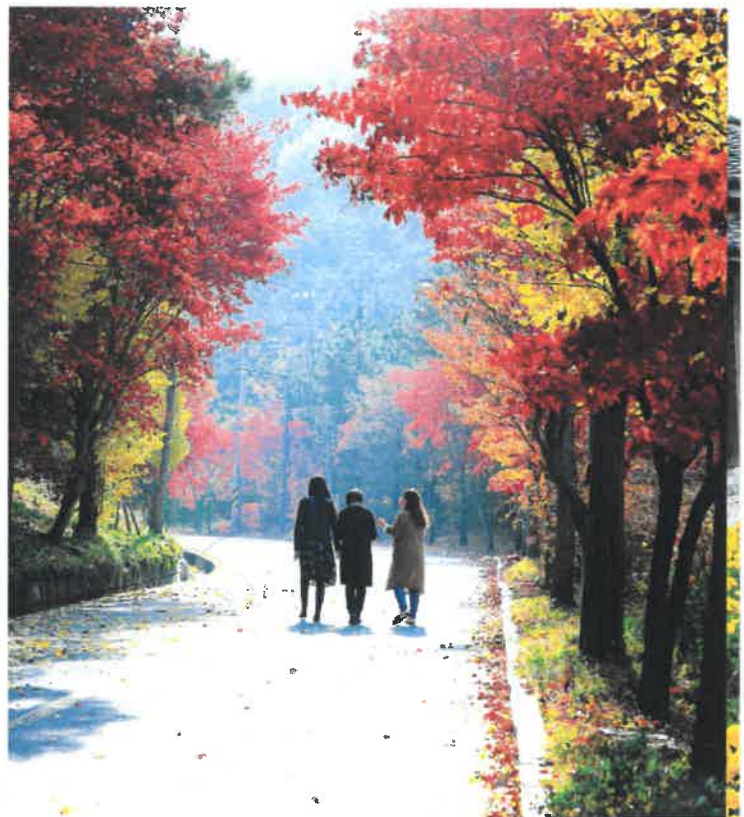
남원의 가을은 언제나 따스하고 아늑하다. 지리산의 단풍에서 시작되어 신생마을의 분홍빛 핑크물리까지 물들이는 남원의 따스함은 낭만과 사랑의 감정에 빠지게 하기 딱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다시 가을이 시작된다.

남원에서 만나는 올 가을은 어떤 만남과 사랑을 만들어낼까?



1 지리산 구룡계곡의 가을 2 정경치 단풍 3 지리산둘레길 다랭이논 4 신생마을핑크물리
5 도상속 향기원에 핀 백일홍 6 서도역에 핀 국화 7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가는 길 8 광천루원의 가을







친절·행복 1번지, 이곳은 대산면입니다.



남원의 서부에 위치한 대신면은 1914년 대곡면과 시산면이 합쳐지고 두 면의 이름 중 한 글자씩 따오면서 이름이 유래했다. 면의 동쪽은 왕정동, 남쪽은 주생면, 북쪽은 사매면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노적봉과 풍악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이 뻗쳐 있고, 동쪽으로는 교룡산의 지맥이 두르고 있어 분지 지형이라 할 수 있다.

분지 지형에다가 운교천이 흘러가며 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대신면은 면민들 또한 좋은 경치만큼이나 아름다운 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신면에 최근 명소가 등장했다.

바로 면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친절쉼터'가 바로 그곳이다.



1 대산면 내부 2 대산면 요가교실 3 대산면 인구늘리기 4 대산면 아버지날 행사 5 대산면 나홀로 효 나들이

대산면사무소 한쪽에 자리한 친절쉼터는 여느 카페 부럽지 않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가지런하게 쌓인 벽돌과 흰색 탁자, 마음껏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 쉬어가는 사람들의 정서함양을 도울 화분들과 책장에 꽂힌 책들은 이곳이 그저 면사무소 한 귀퉁이에 자투리로 만든 곳이 아님을 말해준다.

특히 친절쉼터 한 쪽에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함도 위치해 있어, 이곳이 더불어 행복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다.

면민들의 편안한 쉼터

대산 면사무소는 이렇듯 면행정의 중추 역할뿐만 아니라 면민들의 복지와 휴식을 위한 허브 역할도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

자치사랑방 역시 면민들의 호응이 높아, 가장 인기가 높은 요가 교실의 경우 넓은 장소가 좁아 보일 정도로 사람이 몰릴 정도다.

올 봄에는 면내 혼자 사시는 어른들과 함께 관내 광한루원 구경과 벚꽃 놀이를 함께하는 '효행복 나들이'를 추진해 어르신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를 선사했으며, 아버지날에는 면사무소를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간식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인구 절벽의 시대, 인구유입을 위해 기관과 시설을 찾아서 행복 대산면으로의 전입을 홍보하며 인구 늘리기도 앞장서고 있다.

누구나 친절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다짐한다. 하지만 이렇듯 행동으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나서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곳은 보기 쉽지 않다.

이름만큼이나 행복이 커가는 대산면, 이 곳이 바로 **남원 행복 1번지**가 아닐까? 

“청년남원” 프로젝트 지역맞춤형 좋은 일자리 만들기

남원시에서는 청년인구 유출방지와 지역유턴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지역에 꼭 필요한 ‘청년 일자리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발굴 기획하여 운영 중이다.



남원시는 화장품업체(원스킨, 제너럴바이오, 허브미, 나노스토리)와 연계하여 청년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법인회사(흙농, 아름, 비제이팜)에 농업인턴제 활용하여 창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턴직 근무로 전문적인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청년 인구유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내 유출인구 중 20세 구간에서 947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지역의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생활수준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청년의 문제를 완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 시행하고 행안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1유형으로 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이 있다.



현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인원은 총 97명이며 일자리 사업의 세가지 유형의 세부적인 지원사업의 분야로 12종을 운영 중이다. 세부지원사업의 명칭으로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나는 복수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청년취·창업아지트 '농청' 조성사업, 지역문화관광 기획자 '청춘PD' 양성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사업,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희망심어주기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매니저, 사회적경제 청년매니저, 어린이집 청년 전문조리사 양성사업이 있다.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

지역 정착 지원형 사업은 젊은 일손이 부족한 마을 기업, 농어업법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 청년인력을 공급하고 청년들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2유형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에 머무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창업교육, 임대료 등을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다. 납원시는 청년취·창업아지트 '농청' 조성사업의 이류으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과 임대료를 지원해주

고 있다. 지원을 받는 업체는 20곳으로 참여자들은 창업 초기부분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 경제적 도움을 받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어 다양한 사업 운영 방법 구상, 새로운 메뉴 개발 등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3유형인 민간취업연계형

공공 민간 부분의 일 경험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취업연계형이다.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의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중 청년들의 적성과 관심을 반영한 곳에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사업이다. - 지역문화관광 기획자 청춘PD 양성사업,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사업, 백두대간 코디네이터, 희망심어주기 사업, 청년일자리매니저, 어린이집조리사 양성과정이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계속 근무 의향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고 사업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업기간의 연장을 원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 실업 위기 대책 마련과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로 지역 곳곳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기 좋은 남원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일이다. 

소설 혼불로 만나는 서도역

'매안마을 끝 아랫볼에 이르러 치마폭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눈을 가르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점잖은 밥 한 상 천천히 다 먹을 시간이면 닿는 정거장'
소설 <혼불> 中

소설 혼불에서는 남원 사매면에 위치한 서도역을 이렇게 묘사했다.
소설의 주인공인 효원이 대실에서 매안으로 시집을 때 기차에서 내리던 곳이며, 강모가 전주로 학교 다니면서 이용하던 장소가 바로 서도역이다.

효원의 일행이 강모와 더불어 기차에서 내렸을 때, 정거장에는 한 필의 나귀와 주렴을 늘이운 가마가 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설 <혼불> 中

장소와 풍경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아마도 그와 얽힌 이야기가 있어서일 게다. 광한루원이 불멸의 명성을 얻은 것은 춘향과 몽룡의 사랑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서이기 때문일 것이며, 애비로드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1년 365일 끊이지 않는 것은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커버 촬영 장소라는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도역에는 '혼불'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기차도 다니지 않는다는 '폐역사'라는 스산함이 덮어져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

인연이 그런 것이란다

억지로든 안되어 아무리 애가타도 앞당겨 꼬집어 올 수 없고

아무리 서둘러서 다른데로 가려해도 달아날 수 없고잉.

지금 너한테로 누가 먼 길 오고있을 것이다.

와서는 다리아프다고 주저 앞까지

물한모금 달라고.

소설 <혼불> 中

울 가을,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을 가꾸어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금은 시들어진 사랑을 다시 불러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서도역으로 향해보자. 모두가 꿈꾸는, 모두가 상상했던 영화 속 한 장면이 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만인의총
단풍





가슴 속에 발자국을 찍듯 단풍만큼 가을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게 또 있으랴.

남원의 단풍 명소로는 불붙는 단풍과 암반 위를 흐르는 계곡의 물, 그리고 두 손바닥을 모아서 이들을 담고 있는 듯한 소(沼)들이 어우러진 뱀사골이 최고다.

그렇다면 언제든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는 **도심의 단풍명소**는 없는 걸까?

만인의총이 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는 가까운 곳에 멋진 풍경을 두고서도 늘 멀리 떠날 궁리만 했던 것은 아닐까.

만인의총은 고풍스러운 담장과 어우러져 붉고 노란 단풍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고즈넉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펄펄 끓는 가을의 절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만인의총은 남원을 지키기 위해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신 만여 명의 의로운 충혼을 모신 무덤으로 남원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다.

그러니 나무도 가을이면 일제에 대한 분노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곳이다.

특히 올해는 3.1만세 혁명의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번 경제 전쟁만큼은 우리가 이겨서 정한론이라는 그들의 야욕을 짓밟아 놓을 것이다.'는 목소리가 가을 하늘이 멍들 정도로 크다.

아무래도 올해는 만인의총의 단풍을 바라보는 느낌이 사뭇 다를 것 같다. 



김영기
남원시 블로그 기자



작지만 따뜻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하면서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흔히 현대 민주주의의 지향점이라 불린다.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지방자치제도는 그만큼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의 증가는 갈수록 지방정부가 중앙에 예속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형국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의 해결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등장한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이다.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받자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기부하고 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부적으로 정해진 세제혜택 기준은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3%**를 공제하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기부한 사람들에게 일정금액 이하로 준비한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인구는 줄어들고, 이에 따라 세수도 줄어들어 몇몇 지자체는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입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새로운 희망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향우는 물론, 남원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입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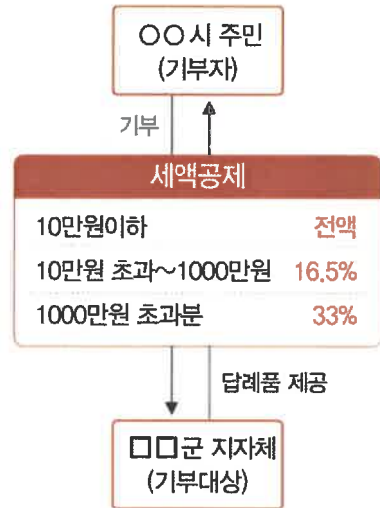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법안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항에 빠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의원입법안이 15건이 상정되며 의견이 갈린 상태다.

현행법을 개정할지, 별도 법을 제정할지, 기부자나 고향을 특정할지, 답례품을 허용할지 등의 쟁점 3가지가 법안 통과와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 입장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 단체장들과 의원들의 무관심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기만 하는 지방과 우리 고향 남원에 활력소가 될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해본다. 📺

고향사랑 기부제도 흐름도 (예시)



고향희망심기에 참여한 재경향우회

고향을 떠나 있어도 고향사랑은 영원합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하는 고향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림고 정든 곳으로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곳입니다. 언제나 고향 남원을 잊지 못해 고향을 떠나서도 고향발전에 헌신하는 남원 향우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회의 및 모임

재경 읍면향우회 사무국장단 모임 참석

일시 : 2019. 6. 8 (토) 11:00

장소 : 미림산장 (강북구)

참석 : 30명 정도 (운봉 오동근 국장외)

내용 : 재경 시내, 읍면향우회 사무국장단 하계 단합행사 개최 / 남원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협조요청과 /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등 시정홍보 실시



재경 남원고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일시 : 2019. 6. 20 (목) 19:00 ~ 21:00

장소 : 엘타워 (서초구 양재동)

참석 : 150명 (신임회장 서병주 / 19회 졸업, 이임회장 양준경 / 18회 졸업)

내용 : 기념식, 회장 이·취임식, 감사패 증정, 장학금 전달 등



재인천 남원고동문회 사무실 현판식

일시 : 2019. 7. 18 (목) 18:00 ~

장소 : (주) 코릴 / 오현규 대표사무실



재경읍면향우회 회장·사무국장단 모임 / 시정홍보

일시 : 2018. 7. 21 (일) 11:00 ~ / 의정부 유원지

인원 : 50명 정도 (이광연 회장외)

내용 : 중복을 맞아 재경읍면회장단, 사무국장, 여성회원, 임원 화합행사

재경 시내향우회 임원 아우회 참석 / 시정홍보

일시 : 2019. 7. 26 (금) 16:00 ~

장소 : 강화 석모도

참석 : 30명 (회장 양해춘)

내용 : 재경시내향우회 9월 총회를 앞두고 임원진 워크샵 개최



행사 및 고향 알림 활동

재경향우회 / 청년·여성 위원 단합행사

일시 : 2019. 6. 22 (토) 10:00 ~ 18:00 / 파주 살림채
 인원 : 50명 정도 (청년위원장 양정훈, 여성위원장 박연심)
 내용 : 여성회와 청년회 함께 친모과 소통의 시간 마련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상생 교류행사

일시 : 2019. 6. 28 ~ 29 / 2일간
 장소 : 서울 상생상회 (종로구)
 대상 : 운향농원 강성진 대표
 20여 농가
 품목 : 김부각, 목이버섯외 30여종
 내용 : 서울특별시와 지역상생 추진 첫 번째로 특산물 판매 및 교류행사 개최



남원 농특산물 / 추석명절맞이 직거래 장터운영 홍보 추진

기간 : 2019. 8. 12 ~ 추석명절시 까지
 대상 : 자매도시 구로구, 서초구, 결연기관 마포구, 강서구 재경 및 수도권 향우 등
 내용 : 직거래 관련부서(원예산업과,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 협의 후 홍보 진행

기간	장소	비고
8.29 ~ 8.30 / 2일간	서초구청 광장	자매결연
9. 4 ~ 9. 5 / 2일간	강서구청 광장	"
9. 4 ~ 9. 5 / 2일간	구로구청 광장	"
9. 5 ~ 9. 6 / 2일간	마포구 도화동 주민센터	"
9. 6 ~ 9. 9 / 4일간	서울시청 광장	유관기관
9.10 ~ 9.10 / 1일간	영등포구 푸르지오 아파트	"

고향방문

남공회원 / 고향희망심기 고향방문 안내

일시 : 2019. 8. 3. (토) 1일간
 참여 : 35명 정도 (김양건 남공회장 외)
 내용 : 남원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의 고향방문을 통해 고향에 희망을 전함



재경향우회 임원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참석

일시 : 2019. 8. 3. (토)
 참여 : 6명(박한근 수석부회장 외)
 내용 : 광한루 600년 기념행사 참석 및 축하



재경 읍면 향우회원 고향방문

향우회	행사명	방문일시	참석
운봉	운봉읍면민의 날, 제34회 황산대첩축제	8. 15.(목)	35명
보절	제37회 남원삼동굿 놀이	8. 15.(목)	회장
산동	산동면민의 날	8. 15.(목)	회장, 사무국장
아영	아영면민의 날	8. 17.(토)	40명
송동	송동면민의 날	8. 31.(토)	40명



내용 : 재경 읍·면향우회 회장과 임원진 등 고향행사에 참석 후 후원금 전달



+ 지금 남원에서는~

SNS에서는 어떤 남원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을까?
지금 현재 딱따끈한
남원 이야기들을 들어보자.

※ 사진 아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해당 SNS로 이동해 더 많은 사진과 영상
감상이 가능합니다.



YouTube

하늘에서 바라 본
지리산 뱀사굴 계곡



#하늘에서_바라_본_남원_2탄
#지리산뱀사굴계곡#하늘에서_바라보니_다르다



Facebook



#남원황금들녘#2019_첫_벼베기
#벌써_가을#올해도_풍년



Facebook



#남원꿈나무들의_요람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남원인사들이_모이는_햇플레이스#정신과_시간의_방

3장+



YouTube

오래의 지평을 넘어서는 아시였다.
저저리와 다습해지는 바람 바람 소리까지 일었다.
다습하고 바람소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남의 덕을 보아할 수는 없었다.

소설 '한달'의 첫구절



#가을엔_독서#남원훈불문화관
#훈불과_함께하는_가을



• 시민이 행복한 시정구현 •

남원 일반산업단지 본격 분양
 산업시설용지 45필지 3.3㎡에 32만
 5,000원선 분양



**남원 노농마을 생생마을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
 제6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
 테스트 문화복지분야에서 수상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꿈꾸는 애벌레'전 성황리에 종료**
 생태계 건강지표 60종, 3,000마리 성
 장과정 등 체험기회 제공



**남원제일고 국방부
 군(軍) 특성화고 지정**
 해군 조리병과 최종 지정, 전문기술
 부서관 양성 발판 다져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총사업비 57억원, 지상 3층규모, 장
 난감 대여실, 도서자료실 등 구비
 ☎ 063)620-5291~5293



**광한루 600년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8월 2일부터 10일까지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 설정 다양한 축하행사 열려



**남원역에 임시 공영주차장
 161면 조성**
 일반용 132면, 장애인용 5면, 경차용
 8면, 아동 및 배려 16면 등



**남원시-전북대학교 간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구축
 업무협약 서명**
 지역 맞춤형 학습능력 개발을 위해
 화장품 뷰티학과 및 목칠 공예학과
 개설



**남원사랑상품권 출시
 5개월 만에 80억 발행**
 관내 4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 후,
 2,270여 가맹점에서 사용



• 이제 곧 시민 여러분을 만납니다 •

**용성중로 도통동~월락동 구간
1.15km 구간 개통**

2019년 9월말 전 구간 완전 개통, 도
통아파트 사거리부터 월락동 양우내
안에 아파트 회전교차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0년 6월 착공 예정

현재 설립부지 매입 및 보상업무 진
행 중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개관

2019년 9월 개관. 남원 근현대 자료
및 체험시설 설치.
남원시 검말 1길 14(금동)
일원



명창의 여정 개관

2019년 11월 개관 예정. 판소리 체
험프로그램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및 상설 국악공연 예정.
남원시 광한북로 22-1



고전소설문학관 개관

2019년 12월 개관 예정. 남원을 소
재로 한 고전소설 자원을 활용해 전
시·교육·홍보 공간 마련.
남원시 향단로 10(쌍교동)



남원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2019년 8월 ~ 2020년 2월, 2020년
3월 개관 예정.
노후 시설 개보수 및 공간 재구성



남원 아트센터 개관

2020년 상반기 예정. 폐 산업시설(구
방송국)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남원시 만인로 92(향교동)



2019년 남원시의회는!



■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지난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안전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박분화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으며,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 질의하는 등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활동
이모저모



〈총무위원회 현장답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현장답사〉



〈남원시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개소식〉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총 5개의 연구단체(도시재생연구회, 남원시 거버넌스 포럼 연구회, 남원 역사와 문화재 연구회, 스마트팜 정책 연구회, 정보격차 정책 연구회)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지홍 의장은 “제8대 남원시의회 의정방침 중 하나인 ‘연구의정’ 구현을 위해 남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적극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한 만큼,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시 재생 연구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경제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양해석, 한명숙, 최형규, 이미선, 노영숙, 염봉섭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남원시 거버넌스 포럼 연구회

자치분권과 거버넌스 기반강화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박분화, 염봉섭, 김종관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남원 역사와 문화재 연구회

남원시 문화재 보호 및 보존을 위한 학술 연구모임으로 양희재, 손중열, 최형규, 김정현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팜 정책 연구회

스마트팜 정책연구를 통한 시책 개발 및 농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김정현, 강성원, 노영숙, 전평기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보격차 정책 연구회

도시·농촌간 정보격차, 정보 소외계층 위한 정보 격차해소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이미선, 김영태, 손중열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알림 마당

3대가 함께하는 제4회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안내

조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을 담은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공모주제 3대(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응모자격 남원시민으로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접수기한 : 2019. 9. 15.(일)까지
 . 접수내용 : 사진파일, 접수자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작품제목 설명 등)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nwbaby@korea.kr
 . 당선작 발표 : 9. 24(화), 30점(행복상1, 가족상2, 화목상12, 미소상15)
 . 시상 전시 : 10. 2(수) 10시 사랑의 광장(아름다운동행 행사장)

문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 620-7941

알뜰살뜰 살림 위한 ‘남원사랑상품권’ 안내

남원사랑상품권은 남원에서 발행하고 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남원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지역화폐입니다.

- 발행종류 :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4종)
- 구입처 : 남원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할인율 : 5%(9,500원으로 1만원권 구입)
- 구입한도액 : 개인 50만원(법인 및 단체는 한도없음)
- 환급 : 상품권면 금액의 70%이상 사용할 경우 환급 (1만원권으로 7,000원 이상 구입 시 나머지 금액 환급)
- 포인트적립
 - 개인 : 3개월간 150만원 이상 구입 시 2만포인트 적립
 - 법인·단체 : 구매금액의 1.5% 포인트 적립

● 추석맞이 상품권 특별할인판매

- 할인기간 : 9. 20(금)까지
- 할인율 : 10%(9,000원으로 1만원권 구입)
- 구매한도액 : 개인 50만원(법인 및 단체 할인 불가)

문의 |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 620- 6342

투어패스 한장으로 행복한 남원여행

▶ 남원순항사랑권이란?

한 장의 카드로 남원의 유료관광지 7개소 무료입장과 맛집, 숙박, 체험 등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입니다.

7개소 정상이용가 **투어패스 이용가** 은 라 인(1인 1매) **4,900원** 약 80% 절약
 약 26,000원 오모리인(1인 1매) **5,000원**

이용가능 7개소 관광지
 광한루원, 춘향데미파크, 항공우주천문대, 지리산허브밸리, 남원랜드(놀이거구 1개), 수지미술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 남원순항사랑권 구입은 어디에서?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구매 가능

- ① 온·리 외 쿠팡·인터파크·옥션·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 키오스크(광한루원 성문 앞)
- ② 오프라인 관광안내소(광한루원, 남원역, 종합안내센터)에서 구매(구매시 가이드북과 함께 특별할인 쿠폰 제공)



▶ 편리하게 터치!

- 카드형 : 자유이용시설 입장권에 패스 카드를 터치 (구매)
- 모바일형 : 자유이용시설 매표소에서 바코드 찍어서

기타 문의
 남원시관광과 063-620-6166 종합안내센터 063-632-1330

※ 전북투어패스와 연계된 자유이용권관광카드입니다

생생하고 알찬
생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접종은 동네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1. 접종 대상

- 무료접종

- ①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② 생후 6개월 ~ 만 12세 이하 어린이
(2007.01.01.~2019.08.31.)
- ③ 임신부 (신규)
- ④ 만 60세 ~ 64세 어르신(1955년 ~ 1959년생)
-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포함)
- ⑥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본인
- ⑦ 다문화가정 (부부와 자녀에 한함)
- ⑧ 한부모 가정

국가
지원

남원
시민

- 유료접종 : 유료접종 희망자

2. 접종 기간

접종 기관	구분	접종 기간
위탁 병·의원	어린이	2회 접종 2019. 9.17.(화) ~ 2020. 4.30.(목)
		1회 접종 2019.10.15.(화) ~ 2020. 4.30.(목)
	임신부	2019.10.15.(화) ~ 2020. 4.30.(목)
	어르신	만 65세 이상 2019.10.15.(화) ~ 2019.11.22.(금)
보건소 (지소· 진료소)	모든 접종 대상자 (무료·유료)	2019.10.15.(화) ~ 백신 소진시

* 어린이 2회 접종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8세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접종이 처음인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위탁 병·의원 현황은 문의바람

문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생활과 ☎ 620-7939

남원시 사회복지심부름 센터 운영 안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물품배달, 병원·
약국서비스,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 도움,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지원센터입니다.

1. 신청방법과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월 ~ 금 09:00 ~ 17:00, 토 · 일 ·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3. 위치는 어디 인가요 ?

- 남원시 요천로 1531 초록빌 1층,

문의 | 남원시 사회복지심부름센터 ☎ 636-0133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안내

종이팩(우유팩, 주스팩 등)을 모아서 가져오시면 화장지를
드립니다.

교환장소 읍·면·동사무소

교환방법 종이팩수집→읍·면·동사무소→화장지교환

배출방법 종이팩을 물로 행군 후 배출(행군물 화분에 물주기)
종이팩은 사각으로 자른 후, 가급적 일반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배출

문의 | 남원시 환경과 ☎ 620-6241

구분	용량(ml)	1개당 무게(g)	종이팩 수집량(매)		친환경화장지 교환
			동	읍·면	
종이팩 (우유, 주스 두유, 기타 음료팩)	200	10	30	20	1개
	500	20	25	20	1개
	1000	30	15	10	1개

남원시 구인정보



모집업체	모집직종	직무내용	인원	근무지	채용담당자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	시설관리 및 매니저	조경관리(풀제거 및 잔디깎기), 청소 및 기계시설관리	1	운봉읍	625-3183
(유)우리산업	생산직	콘크리트 제품 생산	2	덕과면	631-4088
제너럴바이오(주)	사무, 생산관리	화장품 교반 및 생산품질 관리	1	송동면	263-0001
(주)교원구몬	교육관리직	구몬선생님 및 영업관리직	2	도통동	625-0416
(주)첨단엔지니어링	현상공무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관련 공무	1	노암동	010-9211-0454
향토촌영농조합 법인	총무 및 일반사무원	일반사무 (홍보마케팅, 전산회계, 사무보조)	1	운봉읍	630-5030
(주)디에이치 (LG전자 협력사)	판매 매니저	하이마트 가전판매	2	왕정동	042-483-3800
(유)성심이앤지	경리사무원	경리사무업무, 건설업 전반적인 업무	1	도통동	010-8644-7317
연세정형외과	주방 조리원	식사준비 및 배식	1	왕정동	625-7533
사람드림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상담 및 사회복지 행정업무	1	노암동	626-1003
주식회사 마인드산업	간판 및 설치	현장에서 간판제작 및 시공보조 업무	1	향교동	632-7654
(주)현성바이탈	회계 팀 경리사무원	회계 경리업무 또는 인사급여 관리	1	노암동	635-9451
사단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장애인일자리 지원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 지원 고용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업무	1	이백면	63232-5558

※ 상기내용은 각 업체의 채용현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http://www.namwon.go.kr/tour>

더 많은 남원 문화관광 정보를 스마트폰 바로가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남원 문화관광 정보 바로가기 생성방법(안드로이드)



▣ 남원 문화관광 정보 바로가기 생성방법(아이폰)



NAMWON itda

시민의 기억과 추억을 잇는
남원다움 콘텐츠 공모전,

남원 잇~다



시민과 함께 하는
남원이야기 만들기

2019. 8. 19. ~ 10. 31.

참가대상 남원시(군)를 기억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

응모방법 내가 기억하는 남원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콘텐츠(직접 그린 그림, 사진, 동영상, 수필 등)로 응모

응모분야 역사 - 예) 일제강점기, 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 등 | 행정사 - 예) 청사관련, 읍면동 및 주요사업 관련 등
농·산업 - 예) 퇴비증산, 모내기, 시장, 막걸리 등 | 생활사 - 예) 출생, 결혼, 육아, 주택, 교육, 여성의 삶 등
문화 - 예) 지역축제 및 행사, 호텔, 극장, 예술 등 | 장소 - 예) 구남원역, 막걸리골목, 정화극장, 갈매기빵집 등

시상규모 대상 200만원(1명), 금상 100만원(2명), 은상 25만원(4명) ※시상 : 12월중

문의 남원시청 총무과 063)620-6083

